



Since 1969

사단법인 한국생약학회 The Korean Society of Pharmacognosy

한국생약학회 영문지 (Natural Product Sciences) 게재 관련

존경하는 한국생약학회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먼저 지면으로 한국생약학회의 발전과 Natural Product Sciences (NPS)에 논문을 투고하여 주신 회원님들께 학회지의 담당자로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된 것은 현재까지의 NPS에 투고현황을 설명드리고 더불어 회원님들께 NPS의 인용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자 합니다.

NPS의 영문지는 1995년 처음으로 창간되었고 1997년부터 Scopus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인용되어 오고 있는 학술지입니다. 우리 NPS가 20년 전부터 Scopus에 등재되어 오고 있기에 그동안 톱슨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SCI(E) 논문의 등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학회의 편집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학회 회원 분들께 송구합니다.

우리 학회지 NPS를 위한 새로운 투고시스템이 2013년 9월 개통한 이래로 국내 및 외국에서 본 학회지에 대한 투고논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원님들께 매회 투고논문 수 및 게재율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투고논문 56편 게재가 50편: 게재허가율 89.3% (불가율 10.7%)
2015년 투고논문 82편 게재가 62편: 게재허가율 75.6% (불가율 20.7%)
2016년 투고논문 66편 게재가 38편: 게재허가율 57.6% (불가율 40.9%)
2017년 투고논문 71편 게재가 34편: 게재허가율 56.7% (불가율 45.0%)

2013년 이전에는 매년 50편 정도의 논문만 투고되어 90% 이상의 게재율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투고논문 시스템이 완비되고 외국에서의 논문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게재허가율이 50% 중반에 도달



Since 1969

사단법인 한국생약학회 The Korean Society of Pharmacognosy

하였고 2017년 10월 현재 71편의 논문 (국내 40편, 국외 30편)이 투고되어 34편의 논문이 게재가가 되어 게재율 50%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 입장에서는 투고율의 상승과 게재율의 50% 중반의 유지는 우리 NPS의 논문 질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회지에 투고하시는 모든 회원님의 노력과 협력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 본 학회지 NPS의 한국생약학회 학회 염원인 SCI(E) 등재를 위해서는 인용지수 상승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원님들께서 본인들의 연구 결과를 외국 학회지에 투고 하실시 본 학회지의 인용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협력은 우리 학회지의 질 관리 및 앞으로의 SCI(E) 논문 등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한국생약학회의 국제화를 이루는 초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약학회와 NPS 학회지를 사랑하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그 동안의 협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및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회원분들의 가내에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NPS 편집위원 일동